

성매매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의 심리내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고 진[†] 성 승 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성매매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의 심리 내적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현상학적 방법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성매매 여성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원 4명을 대상으로 총 15회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van Manen의 네 가지 실존체(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신체성)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상담원은 성매매 여성의 고통과 삶에 깊이 접촉하면서 기존 상담 구조를 넘어서는 실존적 흔들림과 자기 재구성 과정을 경험하였다. 상담은 구조적 한계, 반복되는 폭력, 감정 소진과 윤리적 갈등 속에서 상담원의 세계를 균열시키는 동시에, 타자(성매매 여성)와의 만남을 통해 존재론적 성찰과 실천의 변화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매매 여성 상담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상담원의 존재를 재구성하는 실존적 여정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담원의 심리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 성매매, 성매매 여성 상담원, 현상학 연구, 대리외상, 여성주의상담

* 이 논문은 2023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고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고 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 E-mail: jini51@hanmail.net

‡ 교신저자: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0855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0길 8
Tel: 02-890-2834, E-mail: madisonair@naver.com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매개로 한 개인 간의 거래라는 협소한 정의를 넘어서, 정치적·경제적 구조, 노동시장 문제,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첩된 복합적 현상이다. 이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정책, 법제도, 남성 중심 문화와 같은 구조적 기제에 의해 조장되고 확산되어 온 사회적 산물이다. 권창규(2018)는 일제강점기의 공창제 도입 이후, 한국 정부가 1960 - 70년대 미군 기지촌의 섹스 산업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1990년대에는 기생관광을 육성해 왔음을 지적한다. 박정미(2016)는 유흥 향락산업이 단순한 상업적 영역을 넘어, 여성의 몸을 자원화한 국가 주도의 경제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분석하였다.

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거래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약 24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해 농림어업 부문에 맞먹는 수준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4). 20 - 30대 여성 인구 중 4.1%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연령대 취업인구의 8%에 달하는 수치다. 이후 2015년 하보스코프닷컴은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를 120억 달러(약 14조 8000억 원)로 세계 6위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매매 시장 규모를 30~37조 원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당시 국내 커피 시장 규모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경향신문, 2020). 성 산업은 지하경제와 온라인 기반의 거래를 포함할 경우 훨씬 더 방대한 규모로 확장되고 있으며, 여전히 추정조차 어려운 실태를 보여준다. 김주희(2015b)는 성매매 여성의 부채 구조에 주목하였고, 성매매 산업 내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을 화폐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이 교환 가치를 갖게 되는 구조에 놓인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변화는 성 산업의 양상에도 급격한 전환을 가져왔고, 성매매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거래를 넘어서 플랫폼 기반의 성매매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이나영, 정지혜, 2019).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제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민가영(2019b)은 성매매 산업이 점조직화되고, 단속을 피해 더욱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운영 주체의 변화, 공간의 흩어짐, 거래 방식의 익명화는 성매매 산업이 더욱 추적 불가능하고 비가시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법적 처벌과 낙인의 이중 억압 속에서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위치에 놓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되면서, 성매매 여성은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이중구조의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 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

표 1. 기존 성매매 상담원 관련 연구

연도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방법
2024	정은영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상담원의 대리외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질적
2022	박미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현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
2016	육혜련, 남미애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의 사례관리 경험에 대한 연구	질적
2013	표정자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에서 마음챙김 기술이 상담원의 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양적
2009	김양이, 김형선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원의 소진 수준에 관한 연구	양적
2009	김희경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양적
2008	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개인 및 조직 특성과 대리외상이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원들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양적
2007	배명섭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양적

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다(여성가족부, 2023). 현재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원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동안 성매매여성 상담원 연구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진, 역량강화, 이직의도, 사례관리 경험, 현장 경험에 관련한 것들이다.

상담원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의료, 법률 및

직업훈련 지원과 성매매 피해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한다(육혜련, 남미애, 2016). 박미란(2022)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현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 단기적인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내담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삶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배명섭(2007)은 상담원은 피해 여성의 긴급 구조를 해야하거나 업주나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경찰수사나 소송 등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함께 노출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원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하다고 밝혔다. 같은 연구에서 경찰의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 상담원의 형사사건 관련 법률지식

부족, 업주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증거확보 어려움으로 형사 법률 지원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원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법기관이나 지원체계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행정 기관의 권위적인 태도와 몰이해로 업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도 있었다.

성매매 여성 상담원들은 신체적 피로, 대리외상, 집중력 저하, 불안 등으로 소진을 경험하며, 특히 정서적 고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양이, 김형선, 2009).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a)에서 전국 670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930부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직무요구 수준이 높고 대리 외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직무의 양이 많고, 업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 지원 기관은 빈약한 재정 지원과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상담원의 이직률이 높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육혜련, 남미애, 2016, 박미란, 2022). 또한 다시함께센터의 성매매 여성 상담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상담은 지원의 시작과 종결을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법률·의료 지원부터 정서적 지지까지 지원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내담자 한 명에게 투입해야 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되었다. 더불어, 내담자들이 자살, 자해, 약물 사용, 탈가정 등 고위험 상황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원은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개입해야하며 그로 인해 불안과 대리외상 문제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동안 젠더폭력 상담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폭력 상담원과 성폭력 상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리 외상, 소진, 정서적 탈진의 주제를 통해 상담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분석해왔다. 가정폭력 상담원과 성폭력 상담원에 관한 연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으며, 이들을 젠더폭력 상담원이라는 공통 범주로 묶어 유사한 외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매매 상담원은 종종 연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문석(2015)의 여성폭력 관련 기관 상담원의 직무소진 극복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상담원들은 예상과는 다른 과중한 행정업무, 불규칙한 근무시간, 반복되는 동료 교체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으로 소진을 경험하였다. 또한 가족과의 갈등,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성향, 열심히 노력해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내담자를 대하며 느끼는 한계감도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윤은주(2007)는 폭력 피해여성과 면담하는 상담원들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고통, 정서적 불안을 고스란히 느끼거나 자신이 직접 겪는 것처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성매매 관련 연구는 주로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며, 성매매 여성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으며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원의 내면 경험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 상담원의 심리 내적 체험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성매매 상담이 지닌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드러내고자 한다. 성매매라는 낙인화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기존

의 통념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려는 윤리적·학문적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의 심리내적 체험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성매매 상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심리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2. 성매매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이 체험한 상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 법

성매매 상담원의 정서적 반응, 실존적 경험, 내적 갈등은 내면에 자리한 주관적 체험으로 양적 연구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과 일상 경험에서 출발하며, 세계에 깊이 존재함을 통해 그 세계를 인식하려는 시도를 전제로 한다(조용환, 2012). 연구 참여자의 세계에 들어가 그와 상호작용하며 그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van Manen (1990)은 현상학을 ‘반성 이전의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세계 그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보았다. 현상학적 연구는 있는 그대로의 체험을 통해 그 본질적 의미 구조(essential meaning structure)를 드러내는 것이다. 연구자는 판단을 중지하고(bracketing), 도덕적 잣대나 선입견 없이 그 현상을 새롭게 바

라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성매매는 강한 낙인과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성매매 여성과 상담원의 경험은 공적 담론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어렵다. 성매매 여성과의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은 단순한 역할 수행을 넘어 신체적·정서적·실존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이는 수치나 분류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의 층위이며, ‘모른다’는 태도로 그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는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과거 성매매피해 상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타 기관의 상담원들 중 성매매 여성과의 상담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으며 깊은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는 다양한 상담원들을 만났다. 본 연구를 기획하며, 상담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반응과 상태를 성찰적 태도로 언어화할 수 있는 상담원을 연구 참여자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 4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8호에 의거하여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 교육을 이수하였고, 성매매 기관 상담 경력은 4년 이상이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한 명의 참여자로부터 충분하게 의미 있는 서사를 도출할 수 있도록 면접의 밀도와 시간을 확보하는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소수 인원으로 모집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구분	연령	성별	성매매 기관 상담 경력	성매매 분야	인터뷰 회기	인터뷰 총시간
참여자 1	82년생	여	4년 11개월	이주여성 성매매, 기지촌, 성매매 집결지	5회기	9시간
참여자 2	94년생	여	5년	온라인성매매, 산업형 성매매	3회기	6시간
참여자 3	83년생	여	11년	성매매 집결지, 산업형 성매매, 청소년 거리이동 상담	4회기	8시간
참여자 4	90년생	여	5년	산업형 성매매	3회기	6시간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면담을 병행하면서, 참여자에 따라 회기수는 3-5회기, 면담 시간은 6시간-9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성매매 기관에 근무하면서 밤 아웃리치나 야간 근무가 잦았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 1은 거리와 이동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오프라인 면담에 한계가 있었다. 주말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에는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평일 면담은 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밤에 진행되었다. 1회 면담은 약 2시간씩 진행되었고, 전체 면담 횟수는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3-5회기로 상이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성매매 상담 경험과 업무 범위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참여자 1과 3처럼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현장(예: 성매매 집결지, 이주여성 성매매, 기지촌, 청소년 거리 상담 등)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현장마다 겪게 되는 경험이 다르다보니 면담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정형화된 시간보다 참여자 각각의 삶과 상담 경험의 내러티

를 충분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본적으로 다룬 질문은 1)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을 하게 된 계기 2) 상담을 하며 겪은 인상적인 경험과 내적 반응이었다. 초기 면담은 참여자의 성매매 상담을 시작한 경로와 초기 동기로 시작하여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이나 처음 겪었던 강렬한 경험을 내면 상태에서 다시 경험하듯 집중하여 묘사하도록 하였다. 그 순간 어떤 냄새가 났고, 어떤 소리가 들렸고, 몸은 어떻게 느꼈는지 등 오감의 반응을 주목하면서 살아있는 경험 그대로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면담을 마치면 바로 전사 내용을 분석하면서 참여자별로 경험에서 드러난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미 있는 서사나 감정 반응에 대해 후속 면담에서 심화 질문을 추가하여 내면의 심리 변화 과정을 따라갔다. 면담이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감정적 그리고 존재론적 동요를 겪는 부대낌의 시기를 통과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연구자는 공통 질문을 도출하여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통과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현상학적 접근의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탐구의 흐름을 반영하며, 참여자의 내면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말과 정서, 맥락을 해석하기보다 경청하고 수용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동료성과 수평적 연대의 윤리를 바탕으로 면담이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닌 참여자 스스로의 성찰과 재구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면담을 구성하였다. 면담을 마치면 바로 전사하였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감지되거나 알아차려지는 부분들을 바로 연구 노트에 메모하면서 그 시간의 생생함을 최대한 남겼다.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나는 질문이나 떠오르는 느낌을 적어나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면담에서 직접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 기간에는 이론이나 학술서를 읽기보다는 상담원의 생활 세계인 성매매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성매매 단체에서 발간하는 책자와 상담원의 수기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나 산업형 성매매 업소가 즐비한 거리를 직접 걸으면서 참여자의 경험을 몸소 느껴보려고 하였다. 연구자의 선 이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관찰, 성매매 여성과 활동가들의 인터뷰 글, 다양한 영상 자료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현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다.

분석방법

참여자의 체험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해석적 분석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정 분석 규칙에 엄격하게 따르기보다 van Manen(1990)이 제안한 것처럼 의미를 보는 자유로운 행위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 이후 참여자의 언어를 반복해서 읽거나 녹취를 들으면서 체험에 내재한 맥락과 정서의 행간을 포착하려고 하였다. 초기 분석 단계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 이미지, 상징 등을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하였고, 이때 참여자의 생활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내부자적 언어(emic term)을 사용하였다. 재차 숙독하면서 의미들을 재구성하는 심층 코딩 과정을 통해 구조화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은 생활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공간, 시간, 관계, 신체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들의 체험을 본질적으로 해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van Manen(1990)은 인간 존재가 세계를 경험하는 기본 구조로서 네 가지 실존체(공간, 시간, 관계, 신체)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체험의 의미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공간은 우리가 사는 체험적 공간을 의미하며,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닌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삶의 시간이다(차은미, 2014). 관계는 타자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체험적 관계의 장이고, 신체는 세계를 접촉하고 반응하는 실존적 매개로서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김세하, 2008). 주제 도출 이후 문헌을 재참조하는 순환적 절차를 따랐다. 연구자는 현상학적 글쓰기 자체를 해석의 핵심 과정으로 간주하고, 문장의 반복 수정과 해체, 재구성을 통해 참여자의 체험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 글쓰기 과정은 연구자의 세계와 참여자의 세계가 교차하며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는 실천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실존적 주체로서 체험의 의미를 공감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van

Manen, 1990).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성 확보 노력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네 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 중립성(confirmability)을 준거로 삼았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당시 질적연구 방법론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와 총 11회기에 걸쳐 코딩과 해석 내용을 교차 검토하였다. 연구자의 해석 관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도한 주관성을 최소화하였다. 해석 결과는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여 해석된 의미가 참여자의 실제 경험과 부합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나아가 주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2명과 대화를 나누며 해당 주제들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가 상담 현장에서 맥락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공감될 수 있는지 점검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분석 전 과정에서 현장성과 기존 문헌을 교차 참조하며, 도출된 주제가 특정 사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의 진술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는 자신의 실천 경험이 해석에 개입하지 않도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분법적인 사고와 자연과학적 태도를 판단중지(bracketing)하려고 하였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으며, 사례비를 지급하고, 인터뷰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작성된 글은 참여자에게 공유되었고, 수정·삭

제·비공개 요청이 가능한 검토 기회를 두 차례 제공하였다. 면담에서 거론되는 성매매 상담 사례는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상담원의 내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전 과정에서 비공개성과 참여자 보호의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성매매 여성 상담이 기존 심리상담의 정형적 틀을 넘어서는 독자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특징을 실존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적 상담에서는 고정된 상담 시간, 폐쇄된 상담실, 치료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경계 설정을 중시하는 반면, 성매매 여성 상담에서는 시간과 공간, 관계의 경계가 보다 유동적이고 구조적으로 해체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담원은 성매매 여성의 폭력 경험을 신체적으로 재경험하거나, 몸의 경계가 무너지는 체험을 하며, 성매매 구조 속 폭력과 무의식적으로 연결되는 심리내적 반응을 겪었다. van Manen(1990)이 제시한 네 가지 실존체(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신체성)를 바탕으로, 표 3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체험된 것으로서의 공간성(Lived experience of space)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 존재가 체험하는 심리적·실존적 장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매매는 처음엔 나와 무관한 세계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관심과 이끌림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의 존재 세계로 받아

표 3. 4가지 실존체와 주제어

실존체	주제어
체험된 것으로서의 공간성 (Lived Experience of space)	성매매 현실 직면
	경계없는 개입의 공간
	외판심 같은 고립감
체험된 것으로서의 시간성 (Lived Experience of time)	시간 경계 해체
	막연하게 불안한 시간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체험된 것으로서의 관계성 (Lived Experience of relation)	성매매 여성의 고통 공유
	세상과의 관계 균열
	타인과의 관계 상실
	자기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한계
체험된 것으로서의 신체성 (Lived Experience of body)	신체의 수용 한계가 허물어짐
	진통의 장
	고통의 전이
	침투
	악몽

들이게 되었다. 상담원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직접 들어가며, 자신이 구축해온 내면 세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방대한 공간 속에서 성매매 여성과 절망을 함께 겪기도 하였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공간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성매매 현실 직면

성매매 여성 상담은 상담원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와 조우하면서 시작되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골목, 업소, 모텔 등은 은밀하고 폐쇄적이며, 그 일상은 상담원의 기존 세계관을 뒤흔들었다. 예컨대, 평범해 보였던 빨래가 성기 닦는 수건임을 인지하는 순간, 일상은 낮설고 충격적인 현실로 바뀌었다. 참

여자 3은 성매매 집결지에 진입하며 자신의 세계가 붕괴되는 경험을 했고, 이는 존재론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3은 “왜 나는 이곳에 있고, 저 여성은 저곳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낮에 친구랑 순회를 돌았을 땐 그냥 집이 예쁘다고만 생각했어. 집결지라는 걸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걷는데, 뭔가 붕괴된 거지. 20~30cm 하이힐에 마른 몸, 예쁜 옷과 화장, 다 너무 예쁜 거야. 빛도 화려해서 눈 둘 곳이 없었지. 센터에 돌아와서 평가할 때 얘기를 했어. 낮에 봤던 빨래, 손님에게 주는 성기 닦는

수건이었더라고. 그 용도를 알고 나서야 여기가 성매매만 하는 곳이구나 알았어. (참여자3)

나는 사실 그 언니 쪽으로 가는 건 최대한 피하고 싶었어. 상담소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하니까 틀을 깨는 게 조심스러웠어.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에게 낯설고 안전도 지켜야되잖아. 그런데 당일 통화하는데 언니가 너무 불안해하시는게 느껴져서 고민 없이 ‘제가 그 곳으로 갈게요’라고 했고, 들어갈 땐 긴장됐었어. (참여자1)

경계없는 개입의 공간

성매매 여성 상담은 특정 사건이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성매매 여성의 삶 전반, 관계, 감정, 생계, 정체성의 층위까지를 가로지르는 방대한 생활세계 속으로 진입하는 경험이었다.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담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고, 상담원은 개인적 역량과 감정적 자원의 한계를 넘나드는 방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문제뿐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까지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만나면 가족, 학업 중단, 친구나 남자친구 얘기까지 다 섞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개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호소는 많은데 해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연락 주라고 했어요. 보호자가 알게 되면 어머니랑 통화도 자주 했어요. 상담이 그런 식으로 넓어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2)

외판점 같은 고립감

성매매 여성들은 폭력, 선불금, 채무,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 성매수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이면서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취약성 속에 있다. 상담원은 이러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듯한 감정을 경험하였고, 성매매 여성과 함께 사회로부터 단절된 외판점에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나와 내담자가 외판점 같고, 고립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해요. 재판에서 비난 같은 얘기를 들으면 저 피고인이랑 싸우는 건지, 판사랑 싸우는 건지, 세상이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고요. 어린 청소년들인데도 의도가 뻔한 질문을 계속하고, 내담자가 당황해서 말 못 하면 더 쪼기도 해요. 가해자 가족이나 친구들이 무더기로 온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갑자기 축제 분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무너지는 것 같고, 재판 끝나고 혼자 훌쩍거리고. (참여자2)

체험된 것으로서의 시간성(Lived experience of time)

반복되는 사건과 위기 속에서 상담은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상담원들은 법적 사건의 부담, 성매매 여성의 불안과 후유증, 긴급한 위기 대응 속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상담원은 무기력감과 정서적 소진을 겪게 되었다.

시간 경계 해체

성매매 여성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 리듬을 가지므로, 상담 시간은 고정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보인다. 초기 상담에서는 다음 만남이 불확실해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다루게 되며, 상담 시간은 자연스럽게 연장되기도 하였다. 복잡한 피해 경험과 채무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은 방대해지고 쉽게 중단할 수 없는 구조로 이어졌다.

3시간동안 초기 상담을 했었고 멈추려고 해도 언니가 오히려 안 멈추시더라고 (참여자1)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다들 밤에 카톡 와도 답장을 하고 이런게 있었는데. 신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연락을 했는데 답장을 안 하면 바로 드랍이 되고 그러니까 챙기고 ‘밤에 죽고 싶다’고 연락하는 내담자들이 가끔 있어요. (참여자2)

막연하게 불안한 시간

성매매 여성은 다양한 범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 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 이런 제도적 모순 속에서 상담원은 여성들이 놓치고 있는 권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막연하게 좀 불안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참여자2)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만나잖아. 권리가 10개면 내가 10개를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놓친 권리를 초기에 내가 캐치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때는 감이 안 잡혀서 진짜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 두려움과 혼란이 계속 응집돼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여성에게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를 지탱해줬던 것 같아. (참여자1)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성매매 여성 상담에서 상담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는 질문과 함께 끝없는 시간의 감각을 경험하였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며, 상담은 성취나 종결의 가능성을 드러내기보다 반복과 지침의 감정으로 변해가기도 했다.

끝이 없어요. 아이들은 계속 힘든 상황에 노출되는구나 싶고요. 그럴 땐 와서 얘기하자, 무슨 일 있냐 물어보고, 크게 뭐가 하긴 어려워도 조언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폭력 피해는 진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서, 내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참여자2)

체험된 것으로서의 관계성(Lived experience of relation)

성매매 상담에서 상담원이 경험하는 관계성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 뿐 아니라 세상, 타

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났다. 상담원은 성매매 여성의 필요에 따라 상담자, 정보제공자, 사회복지사, 친구, 기댈 어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담원은 자신과 타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심과 내적 갈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성매매 여성의 고통 공유

상담의 물꼬가 트이고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상담원은 평소 쉽게 드러나지 않던 여성의 깊은 고통과 상처를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다. 이 고통은 단순한 경청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강하게 공명되었고, 상담원의 심리 내부로 전이되었다. 여성의 복합적 문제에 압도된 상담원은 때로 조급함, 자기 자책, 불안 등을 경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다. 성매매 여성의 불안, 두려움, 외상 후 고통은 상담원에게도 전달되었고, 그 고통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나 스스로 압도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아. 무너지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몽을 꾸다든지 갑자기 울음이 터진다든지. 그건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불가항력적이야. 균형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또 언젠가 한 번 나를 압도할 수 있겠다는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지. (참여자1)

자해 장면을 본 건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기억에 남는 건 저녁쯤 야근 중이었고, 온종일 피곤한 상태였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가 딱 보이고 정신이 아득해졌던 감정이 기억나요. 자살한 내담자는 평소에도 ‘죽고 싶다’, ‘약에 취해 옥상에 올라갔다’는 말을 자주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영영 울다가 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내담자가 죽음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두렵고 걱정이 돼요. 그런 암시를 하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참여자2)

나는 여성들의 죽음도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하는데 왜 안 붙지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 이 죽음은 자살보다는 타살에 가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죽음을 알려내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자3)

일수 빛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들어봐도 너무 심각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나도 같이 급박해졌었던 것 같아.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동화가 되고. (참여자4)

세상과의 관계 균열

상담원은 성매매 상담을 통해 사회 구조의 벽과 법적 모순, 그리고 여성이 처한 취약한 위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고, 생계 기반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이 다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담원에게 깊은 무력감과 좌절을 안겼으며, 사회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법적·제도적 한계와 자원 부족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만, 반복되는 구조적 제약 앞에서 상담원은 상심

과 자책, 그리고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자기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언어에 맞춰 피해 찾기를 수행하는 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고통을 편집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는 윤리적 딜레마와 자기 검열을 반복하며, 피해 인정을 위해 제도와 싸우는 동시에 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와 상실감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

이주여성에게 언제 한국에 왔는지,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지금 남편에게 무력은 없는지, 유사성행위나 임금 체불은 없었는지 두 시간 가까이 계속 물어야 했어. 그런데 ‘나에게 그걸 물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불편한 자리였어. (참여자1)

뭔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조건 자체가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계속 수습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뭔가 사회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경찰이랑 통화하면 너무 스트레스받고, 내담자들은 많은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데 인지 수사가 될까 봐 좌절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세상에 대해 좌절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우울했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폭력적인 순간들을 접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모든 걸 해줄 수 없고 우리의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그런 시간을 거치오면서 좌절의 시간이 있었고. (참여자4)

타인과의 관계 상실

상담원은 성매매 여성 상담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 정서적 충돌, 감정적 한계를 타인과 공유하기 어렵게 되었다. 성매매라는 주제는 강한 사회적 낙인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해명과 설명 끝에 침묵을 선택하고 고립되었다. 영화, 독서, SNS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환기하며, 성매매와 무관한 세계로의 심리적 분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타인과의 단절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상담을 지속하기 위한 자기 보호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차에 앉아있는 남자는 어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남자들이 모텔에 들어가면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고 남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참여자4)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성’자만 나와도 질문이 너무 많고, 친구들까지도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돼요.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얘기하고 싶으면서도 또 피로하게 느껴지고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는 그냥 “사회복지사예요”라고 말해버려요. 처음엔 사명감처럼 이 일을 잘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들을 생각이 있나 싶어서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2)

자기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한계

성매매 여성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은 반복되는 한계와 자기 검열 속에서 자기 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존재적 회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라는 자책으로 이어졌고, 더 나은 상담원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과 불신으로 확장되었다.

내가 상담원으로서 뭔가 이거를 지원하고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냥 모든 매번 사례에서 무기력함을 무력함을 느끼는 것 같아. (참여자1)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엄청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긴 했던 것 같아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참여자2)

내가 다 해 줄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한 부대낌도 있고. (참여자3)

체험된 것으로서의 신체성(Lived experience of body)

성매매 여성의 외상 경험을 듣는 상담원은 감정뿐 아니라 신체를 통한 감각적 공명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였다. 이는 살아있는 몸이 참여하는 체화된 경험이다. 여성의 고통은 상담원의 몸에 각인되어, 꿈, 갑작스러운 눈물,

호흡 곤란 등의 무의식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미혜·성승연(2014)은 외상을 직접 겪지 않더라도 외상화된 타인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전문가들이 침습적 이미지, 악몽, 불안 등 외상 유사 증상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신체의 수용 한계가 허물어짐

신체는 외부 세계와 내면세계를 매개하는 감각의 경계이자, 경험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다. 상담원은 업무 중에는 자신의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적 공간에 이르러서야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그 한계를 체감하였다. 이는 신체가 의식보다 먼저 반응하는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지되지 않았던 감정적 동요가 신체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온라인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한 60%를 제가 한 거예요. 할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 책임과 흥미에 쫓겨서 했는데 집에 와서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쳐있었어요. (참여자2)

에너지가 빠짐을 느껴. 쪽정이처럼 좀 있는 거 같은 신체적으로 힘이 없다, 뭔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거죽이 있고 장기들이 있을 뿐, 안에 역동이 꺼지는.. (참여자1)

진통의 장

참여자 4는 성매매 업소 밀집 거리를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눈물과 무기력에 휩싸이며 주저앉는 신체 반응을 경험하였다. 이는 단순

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기억과 감정이 상징적 공간과 조우하면서 나타난 신체화된 체험이었다.

그 좌절은 어떤 세상에 대한 절망의 시간이었다는 것 같아요.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막 눈물이 나오요. 그 마음을 추스르는 데 몇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약도 먹고, 몸도 살피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흘러보내려 애썼던 것 같아요. (참여자4)

고통의 전이

상담일지나 의뢰서를 작성하며 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은 고통의 장면을 언어로 재현하면서 그 순간에 정서적으로 머물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의 폭력 경험은 상담원의 감각과 정서에 깊이 침투하며, 간접적 외상 체험으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폭력의 서사는 상담원 자신의 삶과 겹쳐지며, 억압과 폭력이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협감으로 작용했다. 고통의 장면은 일상 속으로 침투하여 신체 긴장과 경직 반응을 유발하였다.

앞에서 하염없이 우시는데 두려움과 트라우마 착취로 인해 정서들이 뭐랄까 좁전이가 되더라고. 공포가 자꾸 내 안에도 생겨. (참여자1)

이게 동화가 되면 확, 뭔가 내가 겪은 일 같아요. 머릿속에 영상처럼 그려진다고 해야 하나. 성폭행이나 성매매 과정에서 갑자기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들으면 내가 겪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영상이 머

릿속에서 재생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참여자4)

침투

상담원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매매 여성의 외상 사건이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의식적으로 회상한 것이 아니라, 양치질이나 대화 중 등 일상적 맥락에서 갑작스레 재현되는 감각적 침투였다. 이러한 외상 사고는 단순한 기억 차원을 넘어, 두통, 집중력 저하, 기분 저하, 우울감 등 신체·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지며, 상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에 영향을 미쳤다.

약을 과다복용해서 위세척했는데, 입술에 시커멓게 묻어 있었어요. “입술이 왜 그래요?” 했더니 “위세척해서 그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그냥 태연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놀라면 실례일 것 같아서 내색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양치질할 때 그 입술이 떠올라서 힘들 때가 있어요. (참여자2)

길 가다가 불현듯 이렇게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게 일 할 때 말고 그냥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장면들이 조합돼서 확대가 올 때가 있잖아요 (참여자4)

악몽

상담원은 꿈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고통을 신체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하였다. 상담원은 꿈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고통을 직접 겪거나 자신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경험하며, 성매매 여성의 외상이 상담원의 신체와 정서에

전이되는 과정을 체험하였다. 이는 반복적 외상 노출을 통해 상담원 내면에 외상이 침투하는 대리 외상의 전형적 양상이다(MaCann & Pearlman, 1990).

이 꿈을 한 서너 번 꿰어. 그중 하나는 내가 사체를 썼고, 업소 사람들이 못 갚으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가족들도 있었지만 무력했고, 누군가 날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남성 두세 명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거야. ‘나는 이제 끌려가는구나’. 꿈속에서도 너무 힘들었어. 상담 내용이랑 너무 겹쳐져서 꿈에서 깬 후에도 감당이 안 됐고. 예전엔 이런 뉴스를 보면 분노했는데, 요즘은 무서워. 그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고, 그게 너무 이입되는 거야. (참여자1)

현실을 반영하는 꿈을 자주 꾸요. 몇 시간 동안 경찰 조사에 함께 있었던 날은, 손을 잡고 가해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꿈을 꿰어요. 업소 생활을 오래 하다 자궁경부암에 걸린 내담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돼서 암에 걸리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 감정은 너무 억울하고 화났고, 꿈에서 깬 후에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간접 체험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역지사지하게 된 기분도 들었고요. (참여자2)

성매매 상담원의 상담을 통한 심리 내적 체험에 대한 의미: 타인의 고통을 통과하며 상심과 동행하는 과정

상담원들은 충분한 상담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의 삶의 현장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로 인식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이자 생존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이해하였다. 성매매라는 낯선 공간에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을 직면하면서, 상담원은 자신이 속한 구조의 부조리를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통찰은 상담원 자아의 변화를 이끌었다. 동시에 상담 과정에서 느낀 책임감은 불안과 자책을 동반하였으며, 감정 노동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정서적 소진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상담이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실임을 보여준다. 성매매 여성과 깊은 유대와 반복되는 좌절은 상담원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종종 자아의 흔들림과 상담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상담은 상담원 자신의 내면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여정이자, 자기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으로 드러났다.

상심의 해결 과정

참여자 3은 중·고령 여성을 상담하며, 거리 성매매 여성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목격하였다. 특히 노인 남성에 의한 지속적인 스토킹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에 대응할 실질적 수단이 거의 없는 현실은 상담원에게 깊은 무력감과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여성이 거리에서 일하지 않는 것만이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이는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실현 불가능한 선택지였다. 이처럼 상담원은 반복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체념에 가까운 감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체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상실의 감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상담원은 자신의 역할과 실천의 한계를 절감하며, 내면의 균열을 겪었다. 이들은 감정을 비우려 하거나 기도, 감정적 거리 두기, 동료와의 대화 같은 방식으로 정서적 조절을 시도하였다. 퇴근 후에도 여성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사례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시에 퇴근하고 사례를 내려놓기를 실천하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상담 과정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이 일이 연대인가, 보호인가”, “여성이 다시 성매매를 선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질문을 동반하였다. 이처럼 상담은 단순히 돕는 행위를 넘어, 상담원 자신의 존재와 실천을 되묻는 과정이었다. 상담은 타자의 고통을 통해 자기 존재를 다시 구성하는 시간이었으며, 이 만남은 상담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남겼다.

내적 세계의 균열과 재구성

상담원은 여성의 반복된 고통과 폭력의 서사를 들으며 감정적으로 압도되었고, 사회 변화에 대한 희망이 흔들리며 자신의 역할과 존재에 대한 회의에 직면하였다. 상담은 일방적인 개입의 장이 아니라, 두 존재가 함께 흔들리고 해체되는 실존의 공간임이 드러났다. 초기 상담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몰아넣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문제를 견디고 돌파하는 능동적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상담 관계의 비대칭을 허물고, 도움 주는 자에서 함께 존재하는 자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상담원은 내면의 균열과 해체, 그리고 재구성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성매매 여성의 흔들림과 절망에 귀

기울일 때마다, 상담원 자신의 내면 또한 흔들리고 희망과 믿음의 근거를 재점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은 내면의 불안과 무력감을 억누르기보다 수용함으로써, 타자의 고통에도 보다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었다. “이대로 괜찮다”는 말은 내담자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진실한 수용의 언어가 되었다. 상담은 자기와 타자가 서로 해체되고 함께 재구성되는 순환적 관계이며, 상담원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다시 만들어지는 존재로 변화해갔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상담하는 상담원의 심리 내적 경험을 탐색하고, 그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성매매 여성 상담에서 특징은 기존 상담의 틀을 해체한다는 점에 있었다. 일반적인 상담이 고정된 시간과 안전한 공간, 명확한 관계 경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매매 상담은 성매매 여성의 삶의 현장(업소, 집, 모텔 등)으로 찾아가거나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시간 또한 여성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였다. 성매매는 여성의 생활 리듬을 밤으로 이동시키고, 강한 사회적 낙인으로 세계와의 연결을 단절시키며,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타인과 만남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의 고유한 생활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은 기존 상담의 시간, 공간적 조건을 재구성하고, 상담 접근 방식 또한 유연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van Manen(1990)이 제시한 생활세계의 실존체인 공간, 시간, 관계, 신체를 통해 상담원들의 체험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 상담원이 체험하는 공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담원들은 기존의 생활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성매매 공간과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틀에 균열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복합적인 문제에 압도당하거나, 법률 지원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가 사소화되는 것을 목격하며 세상과 단절되는 감각을 느꼈다. McCann 과 Pearlman(1990)는 대리외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외상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이를 돕는 치료자 또한 자신의 힘이나 세상에 대한 효능감에 대해 위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매매 상담원이 경험한 심리적 반응은 이러한 대리 외상의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세상으로부터의 심리적 거리감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상담원이 체험하는 시간성의 측면에서, 상담은 고정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매매 여성의 긴급한 상황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되었다. 상담원들은 사건의 종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막연한 불안과 무기력감을 느꼈으며, 법률 사건의 무게와 성매매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폭력 후유증과 심리적 불안을 함께 견뎌야 했다. 김양이와 김형선(2009)은 성매매 피해지원 활동이 정서적 탈진, 불안, 집중력 저하, 무기력 등의 고강도 감정 노동을 유발하며, 정서적 고갈 수준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담원의 체험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셋째, 상담원이 체험하는 관계성은 성매매 여성의 폭력피해 경험을 듣고 고통을 공유하면서 시작된다. 상담원은 고통을 공유하며 성매매 여성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였으나,

그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상, 타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상실과 좌절을 경험하였다. McCann과 Pearlman (1990)은 외상 피해자가 타인 및 사회로부터 깊은 단절감을 느끼는 것처럼, 치료자 역시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분리감을 경험하며 상담 비밀 유지 원칙은 이러한 단절을 더욱 강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는 감정을 직접 공유하기 때문에 상담원은 성매매 여성의 공포와 불안을 고스란히 감지하고, 상담 외 시간에도 사건의 잔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상담원은 상담 중 내담자의 고통과 정서를 생생하게 경험하며(윤은주, 2007),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이 자극되는 역전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상담원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 외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권해수, 김소라, 2006). 상담에서 공감은 외상화된 사람들을 돕는 핵심 자원이지만 동시에 대리 외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미혜와 성승연(2014)은 공감적 관여를 줄이는 것이 대리 외상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상담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넷째, 신체성 측면에서는 상담원은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외상이 신체를 통해 드러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성매매 여성의 외상적 경험은 상담원에게 플래시백, 꿈, 침습적 사고 등으로 재현되었다. 꿈은 상담원의 의식이 억압한 감정과 염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매개로 작동하며, 이는 상담원이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 안에서 신체적·심리적 동일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꿈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게 하는 통로이지만, 동시에 상담원의 내면을 고통스럽게 뒤흔드는 이중성을 지닌다.

성매매 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대리 외상과 윤리적 딜레마를 동반하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지만, 이를 감당해나가는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책과 정서적 소진을 겪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삶을 건디며 돌파해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도와주는 자’가 아닌 ‘함께 존재하는 자’로 자기 위치를 전환해갔다. 기도, 감정적 거리 두기, 동료와의 대화, 퇴근 의식 등 일상적 실천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내적 자원을 형성하였으며 ‘이대로 괜찮다’라는 수용의 언어는 타자와 자기 자신을 함께 위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초심 상담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상담 훈련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매매 구조는 피해 양상이 방대하고 폭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특성을 보이며, 이에 대응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 교육은 이론 교육 10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있어 현장의 복잡성과 상담위원의 실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상담 초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압도감을 공통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상담원에게 충분한 훈

련 기회와 지속적인 현장 기반 연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실천 중심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리 외상 예방과 회복을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회피전략을 대처 방식으로 사용할수록 가정폭력 상담원의 대리 외상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신혜섭, 2010; 이미혜, 성승연, 2014, 재인용), 이는 공감적 관여를 요구받는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경계와 자기 돌봄 능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외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담원은 내담자의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이를 억압한 채 무의식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McCann, Pearlman, 1990). 이러한 감정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상담원은 신체적· 정서적 후유증을 겪게 되며, 이는 개인의 취약성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상담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체기반 심리치료 기법과 전문 슈퍼비전, 회복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정기적인 감정 돌봄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상담원의 정서적 회복과 직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개입이 기관 차원에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담원의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상담원에게까지 확장되어, 상담하면서 겪는 고충을 사회적 관계에서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정서적 회피, 외로움, 관계 단절로 이어져 소진을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 동료 슈퍼비전, 상담원 네트워크 모임, 감정 노동에 대한 조직적 인정과 돌봄 체계 등 안전하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상담원 간의 상호지지와 관계 회복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대리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기에, 모든 참여자가 여성주의 정체성을 지닌 활동가로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성주의적 관점이 약하거나 비활동가 성향의 상담원이 경험하는 심리적 역동과 대처 양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배경의 상담원을 포함하여 성매매 여성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대리 외상의 심리적 징후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라는 구조적 폭력에 지속해서 노출된 조력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심리 반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담원이 이를 자기 탓으로 내면화하거나 도덕적 부족함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담원의 조절된 신체적·정서적 상태는 상담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회복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상담원의 심리적 고통을 단순한 소진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성매매 구조에 내재한 폭력의 반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과 심화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20년 4월 7일). 커피 산업 4배 넘

는 성착취 산업, 실태조사는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004050904001?utm_source=chatgpt.com

권창규 (2018). 외화와 '윤락': 1970년~80년대 관광기생을 둘러싼 모순적 담론. *현대문학의 연구*, 65, 279-316.

권혜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95-518.

김양이, 김형선 (2009).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원의 소진수준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6(3), 49-66.

김세하 (2008). 아동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주희 (2015a).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 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주희 (2015b). 한국 성매매 산업 내 '부채 관계'의 정치 경제학. *한국여성학*, 31(4), 217-252.

김지은, 김혜연, 김혜원, 송인한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491-509.

김희경 (2009). 성매매방지상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충래, 주한나, 손유경 (2008). 개인 및 조직 특성과 대리외상이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원들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265-293.

다시함께센터 (n.d.). 2019-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통계분석 보고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4년 7월 5일).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한 특별기획① 실태 및 대책.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65043479>
- 레이첼 모랜 (2019). 페이드 포: 성매매를 지나온 나의 여정(안서진 옮김). 안홍사.
- 민가영 (2019a). 성매매를 통한 친밀함의 모방: 성매매와 성매매 아닌 것의 경계를 허무는 착취. *한국여성학*, 35(1), 121-150.
- 민가영 (2019b). 성매매 운영 대중화에 따른 개별화, 후기 게시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6(1), 93-120.
- 박미란 (202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현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미 (2016).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 *여성학논집*, 33(2), 31-62.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기획 (2022).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 배명섭 (2007).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시현 (2016). 대리외상경험이 외상 상담자의 외상신념, 외상스트레스,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희 (2004). 가정폭력쉼터 종사자의 소진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밴 매넨 (2000).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방법론(신경림 옮김). 현문사.
- 손은정 (2006). 대상화 경험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99-417.
- 여성가족부 (2011).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 연구보고 2011-36.
- 여성가족부 (2023).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육혜련, 남미애 (2016).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의 사례관리 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7(1), 233-259.
- 윤부성 (2000). 아내학대 관련 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은주 (2007). 상담원의 소진(burnout)에 대한 체험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나영, 정지혜 (2019).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 변화하는 성착취 유휴터스. *젠더와 문화*, 12(2), 193-230.
- 이미혜, 성승연 (2014). 상담자들의 대리외상: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09-137.
- 이미혜 (2015). 상담자의 대리외상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가정폭력상담자를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석 (2015). 여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소진 극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 (2024).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상담원의 대리외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 (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

- 인류학연구, 15(2), 1-21.
- 차은미 (20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소진 체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표정자 (2013).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에서 마음챙김 기술이 상담원의 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a).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b).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종사자 정신건강 진단·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c). 2022 성매매피해자 지원 과정 매뉴얼-시설 유형별 초심자용.
- Laurie Anne Pearlman, Karen W. Saakvitne (1995). *Trauma and the Therapist*. W.W.Norton & Company.
- McCann, I. L. & Pearlman, L.A.(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31-149.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1차원고접수 : 2025. 05. 08.
심사통과접수 : 2025. 06. 05.
최종원고접수 : 2025. 06. 3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intrapsychic experience of counselors who counsel women in prostitution

Jin KO SeoungYun Su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is study explored the essence of the psychological and internal experiences of counselors working with women engaged in prostitution, employing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ver 15 sessions with four counselors who had practical experience in prostitution counseling, and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van Manen's four existential categories: lived experience of space, lived experience of time, lived experience of relation, and lived experience of body. The counselors experienced existential disruptions and processes of self-reconstruction beyond the traditional counseling framework through deep engagement with the suffering and lives of the women. Counseling emerged as a space that fractured the counselor's world through structural limitations, repeated exposure to violence, emotional exhaustion, and ethical dilemmas, while simultaneously fostering ontological reflection and transformative practice through encounters with the Othe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rostitution counseling is not merely a form of support but an existential journey that reshapes the being of both counselor and client. It also suggests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psychological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counselors.

Key words : prostitution, counselors for women victims of prostitution, phenomenology, vicarious trauma, feminist counseling